

<2020년 2월 2일 주일 말씀> 요약

☞ 교단의 공식 말씀 문서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본문: 누가복음 21장 32~36절 (참고 성구: 누가복음 21장)

- ◆ 오늘도 하나님의 무릎 앞에 바짝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우리가 잘못될까 봐 계속해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전쟁터의 갑옷도 되고, 뚫 성벽도 되고, 안전한 피신처가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 ◆ 설교 들을 때, 정신 집중하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절대시하며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머리에 확실히 입력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도 더 잘 일어납니다. 집중하고 가치 알고 절대시하며 말씀 들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 ◆ 선생님은 40일, 70일씩 깊이 기도하며 말씀을 받았어요. 70일 금식 기도하며 한 때, 두 때, 반 때를 깨달았어요. 깊이 기도하니, 야심작이 백보좌임을 깨닫고, 재림, 휴거, 혼체, 본체와 분체, 뇌에 대한 깊은 말씀을 받았어요. 듣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근본으로 깨달으려 기도하며 들어야 합니다.
- ◆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받았어요. “조심하라.” 주제는 어제 미리 쫓았어요. 꿈에도 조심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꿈에 내가 드론을 잡았더니 혹 나는 거예요. 그 드론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잡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1m 올라가는데 얼른 한 손은 드론을 잡고, 한 손은 옆에 있는 단단한 나무를 잡았어요. 드론을 놔 버리면 드론이 날아가니까요. 한 손만 드론 잡고, 한 손은 나무를 단단히 잡으니, 드론이 계속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팔 운동을 했어요. 조심해야겠다. 조심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이 말씀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꿈에 돌 두 개를 꼭 쥐고 다녔어요. 돌도 다 버리지 말고, 좋은 것만 꼭 갖고 있어야겠다. 판단 잘하고 조심해야겠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 ◆ 지난주 처음 사랑 찾아라, 하나님 앞에 상냥하게 하고, 웃으며 하라. 그렇지 않으면 책망받는다. 환경에서 자신이 책망받아요. 환경으로 책망받고, 하나님과 성령님께 책망받고.
- ◆ 이번 주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근본을 풀어주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은, 네 책임이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영계에서 풀어오면, 하나님의 원어로는 네 책임이다. 네가 해야 한다. 네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네가 조심하는데 네 책임을 하라.
- ◆ 하나님, 성령님 말씀을 듣는 기쁜 날이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받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말씀은 천지가 변하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환경이 변할지라도, 말씀은 정녕코 이뤄진다. 세력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합니다. 말씀 받은 자는 신이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 ◆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쫓았어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받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듣고, 70일을 굶어도 서운해하지 않고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의 절대성을 깨닫고 들으니 말씀을 받은 거예요.
- ◆ 말씀 딱 한 마디 준 것을 행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운명이 좌우되는 권력, 명예 받고 잘되고 형통해요. 한 사람이 시험 두 번 떨어졌다고 했는데, 대전에는 충남대가 크니 충대 넣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원했어요. “애간장 타지마.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지내라. 내가 말한 것을 믿어라.” 했는데, 합격했대요. 한마디 듣고 넣었으니 되었죠. 겁난다고 안 넣었으면 다른 데로 갔죠. 전체도 딱 한 마디예요. 한마디가 운명을 좌우해요.
- ◆ 하나님의 잠언은 딱 7자, 4자, 어떤 것은 한 자예요. “하라. 하지 마.” 이것이 잠언이에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 말씀 받으면 기쁘게 생각해야 해요.

◆ 섭리 역사를 끌고 갈 말씀 받을 때는 70일을 굶으며 살았어요. 사경을 헤매며, 바짝 마르고. 일어나지 못해 엎드려서 말씀을 받았어요. 프랑스 갈 때도 21일 금식하고 비쩍 말라서 못 일어나겠는데도 갔어요. 하나님께서 프랑스 심판 하시는데 따라갔잖아요.

◆ 대둔산에서 말씀 받을 때도 계속 굶고 열매 따 먹고 굶고, 그렇게 40일을 기도하면 바짝 말라서 정신만 살아있어요. 말씀은 밥 먹고 받으면 졸리고 잠 와서 잘 안 돼요. 말씀 받을 때는 아주 총명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받아야 하니까 굶었어요.

◆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졌어요.

천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졌어요.

누가복음 21장, 그때 일어난 일들, 앞날에 일어날 일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잘 꾸며져 있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 예수님 34살에 돌아가시고서 37년 후에 로마 박해와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말씀하신 대로 다 무너졌어요. 천하, 환경이 변했어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이 시대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천하가 변하고 환경이 변했을지라도 다 이뤄졌습니다.

◆ 옛날에 예언한 징조들, 지진, 태풍, 전쟁, 모든 것이 다 이뤄졌어요. 전염병, 사스, 예언 다 했잖아요.

사스 시작한 날 옆 사람에게 바로 말씀 나갔어요.

심판, 코로나도 다 예언 나갔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났나 봐라, 이렇게 하였으니, 무슨 일이 있나 봐라,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세밀하게 들어요. 정신 안 차리면 받아들이는 것이 약해요.

◆ 누가복음 21/10~19,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때를 예언하신 것. 기근, 지진, 온역, 징조들이 있고, 환난이 있으리라.

너희는 걱정 말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

환난 중에 조사받다가 눈, 손가락 등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주도, 증인들도, 시대 같이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고통받았으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왔어요.

천하, 환경이 변하여도 말씀은 변함없으니 믿고 행하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털끝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환난에 넘겨져도, 스스로 조심하고 끝까지 견뎌라.

예수님 때에 말씀대로 행한 사람만 머리끝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나도 조사받을 때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 10일 동안 받는다. 하루가 1년이다. 십자가 10년이다.

◆ 부모, 형제들이 괴롭히고 악평자로 인해 고통받았어도 지켜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모든 말을 지혜롭게 하게 하시고, 고통을 이기고 끝나게 하셨어요.

예언대로 환난 이기고 살아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 불신하고 하늘 품 떠난 자들은 유다같이 사망 길, 고통 길로 갔어요.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라. 천지가 다 뒤집어져도 이뤄지는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맙니다.

◆ 31~34절까지 핍박, 민족 함락, 전쟁 예언이 그대로 이뤄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았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으니 몰랐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고 이뤄진다.

◆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 술, 생활의 염려로 둔해진다. 사람들 걱정, 근심, 염려 지나치게 해요. 생활의 염려로 둔감해져요. 코로나로 너무 생활 염려 안 해도 돼요. 마음이 둔해지고, 멍청해져요. 그러면 그날이 닷같이 임할 때 피할 수 없어요. 너무 생활 염려에 빠지면 안 됩니다.

◆ 월남전에서도, 누군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오늘은 살아올까 했어도, 그렇게 걱정, 염려를 안 했어요.

사스 때 내가 거기에 있었어도 사스 걸릴까 봐 그렇게 걱정 안 했어요. 생활 염려들 너무 하지 말라.

◆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행한 자는 이기고 승리했어요. 지금 이 시대 말씀도 천하, 환경이 변해도 말씀대로 이뤄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성령님, 주와 딱 붙어살면 확인할 것이 없이, 잘 되고, 휴거도 됩니다. 섭리 핍박한 자, 악평한 자, 그들이 숨어도, 하나님이 행한대로 주십니다. 겨울이 지나면 때미는 죽죠. 확인할 것 없어요. 확인하다 세월 다 가요.

◆ 월명동도 개발 안 된다고 하던 우리나라 법이 뒤집어졌어요. 300평 이상은 허가가 안 나는데, 계속 기도했더니, 대통령이 12월에 해 줄 것을 해주라고 해서, 2만 평을 올렸어요. 그때 빨리하라고 해서, 빨리 서류 넣어서 그해 안에 접수가 됐어요. 12월에 올렸는데, 12월에 안에 바로 나왔어요.

◆ 월명동, 역사의 기록에 남아요.
빨리해서 우리에게 해당 되는 것이 딱 되고 끝났어요.
허락하고 법이 가장 빨리 바뀌었대요.

천하가 뒤집어져도 이룰 것은 이룬다는 거예요.
생가 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다 되고 이뤄지고 말았어요.
천하가 변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뤄지니까.

◆ 스스로 조심하라. 인생 살 때 각종 조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조심할 것이 많지요. 코로나도 조심하라.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의논이 되었어요.
그러나 얘기해 주면 마음을 놓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조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심 안 하는 자는 걸린다. 스스로 자기 책임이니 꼭 하라.

◆ 조심할 것이 많아요. 옷 사러 가서 조심하라. 사 놓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도 돌 사 올 때 조심해서 사요. 어떤 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줄 때까지 기다려서 3년 후에 샀어요.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샀어요.
그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면 여기 돌은 1/3도 못 쌓았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돈에 맡기며 해 왔어요.

◆ 그릇된 종교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 여러분은 왔으니 괜찮지만, 새로 오는 사람들은 잘 가르쳐줘야 해요.

자기 중심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

자기가 그릇되게 안 것은 바로 알 때까지 평생 몰라요.

◆ 스스로 조심할 것이 많다. 하나하나 작은 것도 조심할 것이 많다. 책을 십만 권 읽은 것보다 낮고, 20년, 30년 강연 듣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뇌에 입력을 시켜줘요. 그때마다 행하게끔. 스스로 조심하면 엄청난 유익, 이익이고, 손해 안 받고 화를 안 받게 되고, 앞날의 화도 안 받게 됩니다. 늘 조심하면 그 화도 안 받고 갑니다.

◆ 조심하면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다 피하게 돼요.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자동으로 피해 가요.

조심 안 하는 사람은 평지에서도 넘어지고 다쳐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차 타고 다녀도 사고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차도 아닌 수레 타고 가다가 크게 다치기도 해요.

스스로 조심 안 하다가 다치는 사람 많아요.

◆ 선수 중에 10년 프로 생활했는데, 조심 안 해서 근육 다쳐요. 선수들에게 코치 한 마디. “조심하라. 이것을 잊어버리면 다친다.” 운동할 때도 항상 조심해요. 발목 꺾이는 것을 엄청 조심해요. 그래서 미리 발목 꺾고 견뎌야요. 고단수, 극적인 방법이에요.

◆ 여러분도 조심해요. 세계 모든 나라, 타이완, 가까워서 염려 많이 되지만, 말씀 듣고 전심으로 잘 해요.

홍콩 많이 걱정되지? 우리 전체가 기도해 주고 있어요.

선생님도 전염에 대해 기도해 주니 걱정하지 말고, 조심 단단히 해요. 싱가포르, 동남아 전체, 열심히 말씀 듣고 잘 해요.

◆ 스스로 조심할 것이 많다.

생활 가운데 스스로 조심하라. 그 단어를 잊으면 절대 안 돼.

잊으면 죽는다. 잊으면 다쳐요.

온 세계 사람, 각 민족, 개인 하나하나가, 신중 코로나 조심해야

합니다. 마스크도 쓰고, 대화할 때 마스크 쓰고 해요.

◆ 오직 주의 말씀을 중심하며 가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스스로 조심하라, 선포하는 말씀 잘 들어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각자 자기 책임.

스스로 조심하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 옆에서 누가 말해주며 따라다닐 수 없으니,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해요. 설교는 딱 한 마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면 한 마디로 끝나는 것. 내가 산에서 이렇게 배웠으면 아직도 못 내려왔어요.

한 마디로 핵심 가르쳐주시고, 백만 가지가 그러하다 하셨어요.

◆ 우리는 미리 조심했어요. 위험하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생명시하고 스스로 어디 가나 조심하며 살라. 말씀을 목에 걸고 다녀야 네가 이기고 시체로 끝나지 않는다.

말씀 선포한 것은 꼭 지켜야 해요. 조심하지 않으면 뗏에 걸린다.

말씀 선포한 것 안 지키면 밖의 사람같이 바로 걸려요.

◆ 서산 어린이집에 섭리 아이가 다닌다고 해서 걱정되어 기도했는데, 이상 없다고 했어요. 특히 아시아, 코로나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주도, 관리자도 늘 쫓아다니며 조심하라 할 수 없으니, 스스로 하라. 멀리 다니지 말고, 입마개하고 다니고.

◆ 하나님은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민족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남 살리다가 자기가 구원 못 받을까 한다는 사도 바울 말도 생각해요. 남만 관리하다가 자기 관리 못 하면 안 되니까.

자기 것, 지혜롭게, 책임 분담 다 하여 섭리 역사 하라. 전도할 때도 마스크 쓰고 해요. 마스크 써도 대화할 것 다 합니다.

◆ 대 모임은 자제하고, 각 교회에서 역사 펴고, 생활 속에 하면 좋아요. 성령께서 “얼어붙지 말고 하라. 봄날 왔다.” 하셨어요.

마음 얼어붙으면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 환난 때 잘하면 더욱 잘되고, 자기 건강도 살피고, 여기저기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꼭 필요한 곳만 가라.

이때 자기를 만들고 더욱 닦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

성령과 주와 함께 지혜롭게 해서 많은 것을 얻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 손 깨끗이 씻고, 10번, 20번 씻고. 몸도 씻고 살피고.

◆ 마스크 쓰다가 나에게 오면 마스크를 벗고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 쓰고 얘기해라. 마스크 쓰는 때는 쓰는 것이 도리예요. 마스크 벗은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 처음 사랑 잊어서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사랑을 찾고, 회개하고 온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가시니, 끝까지 안 가시게 기도해야 합니다.

조심할 것이 많습니다. 조심하면서 하나님도 대하고, 성령님도 대하고, 성자도 대하고, 주도 대하고, 형제들, 신부들끼리도 조심하면서 대해야 합니다. 자기가 조심할 것을 쓰고 조심하며 살아요.

◆ 모든 것들에 조심하라. 하는 것마다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항상 이 말씀을 머리에 넣고 행동해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넣고 생활하나 본다고 했습니다. 항상 조심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하라.

꿈에서 한 손은 나무 잡고, 한 손은 드론 잡듯, 두 가지를 딱 잡는 것이 조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쏠리면 실수하고, 손해 가고, 건강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 건강도 아주 조심해야 해요.

◆ 앞날에 심각하게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조심하라고 가르쳐주시고, 말씀 명심, 생명시 하고 모두 지켜 행하면 빨리 매듭지어진다, 하셨습니다. 뇌, 뱃속에 깊이 새기고 잊지 말고 행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킬 때 그런 것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신다.

모든 세계는 조심해야 빨리 끝난다. 조심 않고 행하면 어느 민족, 개인, 지역도 빨리 끝나지 않는다. 빨리 끝날 수 있게, 우리가 조심하면 된다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말씀 따라 행하기 바랍니다.

말씀 읽음							
-------	--	--	--	--	--	--	--